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지사장 정경훈)가 지역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과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해남·완도지사는 22일 해남군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지사는 관내 주요 농업인 단체 3곳을 대상으로 총 3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을 전달하며 농업인 복지 증진에도 힘을 보탰다.

지원 대상은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등 3개 단체다.

특히 이번 물품 지원은 영농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실제 작업환경을 고려해 추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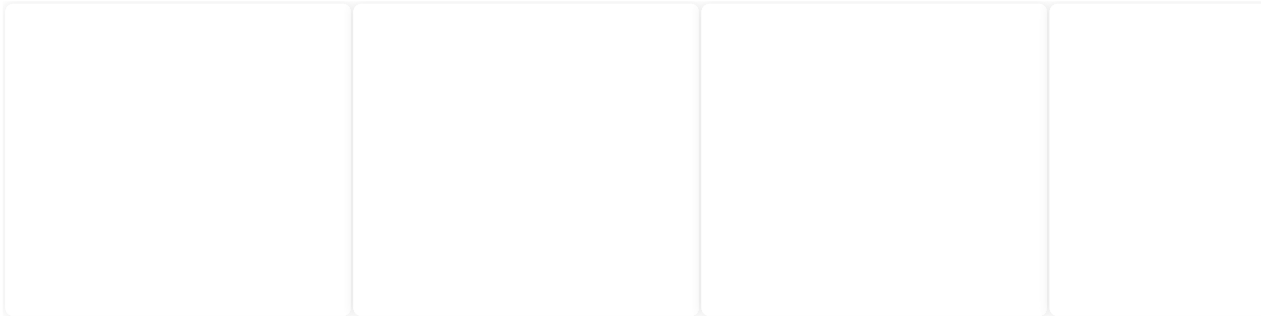
지사는 농업인들에게 응급키트와 모자 등 영농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며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지원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과 농업인들의 영농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정경훈 해남·완도지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소외계층과 영농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따뜻한 해남·완도지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저가 자동차 용품
Temu

